

CHINESE TITLES

제목 : 愿有人陪你颠沛流离
가제 : 당신이 방황할 때 함께할 누군가
저자 : 卢思浩 루쓰호
발행일: 2014년 7월 1일
분량 : 344
장르 : 자기계발



<내용소개>

일상 속의 사소한 아름다움에서 긍정의 힘을 발견하다
출간후 25만부 판매를 돌파한 베스트셀러!

너무 많은걸 보고 나니 모든 게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생긴다. 주변에 부정적인 목소리, 부정적인 정서가 많으니 오히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디자인하라. 포용할 수 있으면 다투지 말라. 행동할 수 있으면 멍하게 가만히 있지 말라.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으면 굳이 거절하지 말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은 가능한 하라. 가고 싶다고 말한 곳엔 될 수 있는 한 가보라. 이 세상은 위험하고 삶은 유한하다. 그러니 당신의 시간을 아름다운 데 쓰기도 부족하다.

작가 루쓰호는 17살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으며 일상 속에 스며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진실한 글귀로 담아내고자 노력해왔다. 그는 “마음속에 햇빛이 빛나고 있으면 어두운 밤이 두렵지 않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이 긍정의 믿음은 진실된 문장을 통해 두려워 말라고 독자들을 위로한다.

<저자소개>

루쓰호

호주국립대학(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을 졸업하였고 중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그는 어린아이 같이 유치하고 큰 꿈을 꾸는 바보,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 작은 한가지 일로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도시에서 자주 길을 잃는 길 치이고 흘러가는 시간을 잡으려고 시간과 달리기경주를 한다. 간단한 문자로 이 고독한 우주를 비춰보려 꿈꾸기도 하고 먼저 큰 허풍을 저지르고 죽도록 노력하여 이루고야 마는 바보이다. 저서로는 <갑자기 닥쳐온 여름 그리고 그 이후...> <26살까지 살고 죽겠다> <외로움은 필수과목이다> 등이 있다. 전작 <이

르지 못할 내일은 없다>는 중국에서 35만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목차>

프롤로그

삶에 관하여

- 세계는 광대하다. 당신의 마음 속에 울리는 말을 들어라
- 약점을 인정하는 편이 강한척하는 것보다 유용하다
- 한번에 무너뜨리는 것도, 한번에 구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
-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 기다릴 줄 안다

...

우정에 관하여

- 아마도 그들이 오랫동안 곁에 있어줬기 때문일 것이다
- 자유롭게 소탈하게 살자
- 자신을 대하듯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라
- 난처한 나이가 되었다

...

꿈에 관하여

- 아직 청춘일 때 청춘을 비관하지 말라
- 무엇을 위하여 기꺼이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 나는 최선과 노력의 의미를 믿는다 왜냐면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 어떨 땐 체면을 구기더라도 당신이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한다

...

사랑에 관하여

- 떠나기 전에 나를 깨우라
- 대화가 통하는 게 중요하다
- “아, 이 노래 아마 [간단한 사랑] 같아”
-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얼버무리지마

...

“루쓰호는 몇 년째 호주에 있지만 그의 글을 읽으면 마치 같은 곳에 있다는 느낌을 준다. 한 태양을 보고 같은 달빛을 받은 후에 잘자라는 인사를 하고선 각자의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말이다. 그의 길은 연필로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마음에 새기는 것 같다. 그래서 폭풍이 불어

도 흠어지지 않고 오히려 곳곳해지는 것이다. 소년의 힘은 항상 여유롭고 태연한데 있으며 그 따뜻함은 끝까지 지속될 것이다.” - 류통, 광선미디어사업부 부총재, 드라마 프로듀서, 방송 MC

가제 : 연못 위 연못 아래
저자 : 치우청중 (대만)
발행일: 2014.11
분량 : 50 쪽
장르 : 아동그림책



- 대만우수도서상, 신문국 최우수아동, 청소년과학도서 금정상 등 수상, 볼로냐 일러스트레이션 부문 입선작가 구승종의 아동 생태그림책!
- 제 1회 평즈카이 아동일러스트 수상작

<내용소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나뉘어 계절이 지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디선가 날아 온 백로 한마리가 이런 시간의 침묵을 깨버리지요. 동시에 연못의 위, 연못아래속에서 벌어지는 생명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보고있지는 않지만 연못아래에서는 작고 작은 알은 조금씩 잠자리의 생명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탈피, 우화, 교미, 을 거쳐 죽음에 이르기 까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책은 작가가 잠자리의 일생과 연못주변의 곤충식물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섬세하게 묘사하면서 사진기의 렌즈로 생명을 보는것처럼 각종 변화와 그려내고 있고 연못의 위, 아래의 생태계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못 위와 연못아래를 주축으로 하여 잠자리의 일생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자 소개>

1952년 대만에서 태어났고 교육 아동 도서 출판부에서 디자인부서, 편집부서에서 근무하였고, 그림을 그리고 그의 일러스트레이션이 유럽 일러스트레이션 대회에 입선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강에 흐르는 물고기들, 산에 피어있는 꽃과 나무를 보면서 자연과 함께 자랐습니다. 대만 문화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하였고 그의 작품은 제 1회 전국유화대전에서 특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아동도서 출판부에서 편집디자인 부서에서 근무하였고 그림을 그렸고 유럽 일러스트레이션 대회에서 입선한 경력도 있습니다. 편집 디자인 부서에서 일하는 동안 자연과학 분야의 지식을 쌓게 되고 야생조류의 세계에 입성하여 야생 새들을 생동감 넘치게 표현하였습니다. 생태자연, 환경에 대해 자신만의 견고한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있고 자연 관련된 문학들을 썼습니다. 대표적인 그림책으로는 <차茶> 등이 있습니다.

